



습근평 전국청년연합회 제 14 기 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국학생연합회 제 28 차 대표대회 소집에 축하편지 보내어 강조

정확한 정치방향 확고히 하고 개혁혁신 심화하며 당의 기치 아래 새 로정에서 분진하고 새 업적 창조해야

[북경 7월 2일발 신화통신] 중화 전국청년연합회 제 14 기 위원회 전체회의 및 중화전국학생연합회 제 28 차 대표대회가 2일 오전 북경에서 개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축하편지를 보내 당중앙을 대표해 축하를 표하고 전국 여러 민족 각계 청년과 청년학생, 광범한 해외 중화 청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습근평은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년 동안 당의 령도 아래, 공청단의 도움과 지도하에 각급 청년연합회와 학생연합회는 직책을 참담하게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며 광범한 청년과 청년학생들이 당을 따르고 분발 진취하도록 조직, 동원하여 청춘의 힘을 기여하고 새시대 중국 청년들의 양양되고 향상하는 정신풍모를 보여주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들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광범한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부름에 자각적으로 따르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애국심을 심후하게 키우고 력사적 사명을 용감하게 떠맡으며 멋있게 책임을 감당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써내려가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조직은 청년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청년연합회와 학생연합회의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광범한 청년과 청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업적 성취를 위해 마호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청년연합회와 학생연합회 조직은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고히 하고 개혁혁신을 심화하며 광범한 청년과 청년 학생들을 단합 인솔하여 당의 기치 아래 새 로정에서 분진하고 새 업적을 창조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채기개 개막회에 참석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장인 설택봉이 회의에서 습근평의 축하편지를 대독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리서뢰가 당중앙을 대표하여 축하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축하편지는 중국의 청년운동이 가일층 앞으로 나아가도록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터득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시대 당의 청년사업을 추동해 새롭고 더욱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광범한 청년들이 습근평 총서기의 가르침을 명기하고 리상이 있고 용감히 담당하며 고생을 견뎌내고 달갑게 분투하는 새시대의 훌륭한 청년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며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새 로정에서 멋있게 책임을 감당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 써내려가기를 희망한다.

리간결, 진문청, 류금국, 왕소홍, 철을, 바터얼이 회의에 참석했다. 대회 개막회에서 공청단중앙 서기

처 제 1 서기 아둥이 축하를 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서기처 제 1 서기 하군과가 인민단체를 대표하여 축하를 했다. 공청단중앙 서기처 상무서기이며 13기 전국청년연합회 주석인 서효와 27기 전국학생연합회 주석인 서희가 각각 전국청년연합회 제 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전국학생연합회 제 27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업보고를 진술했다.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북경시 책임자, 전국청년연합회 14기 위원회 위원, 전국학생연합회 제 28차 대표대회 대표, 수도 각계 청년과 청년학생 대표 등 3,000여명이 개막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청년연합회와 전국학생연합회의 5년간의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5년의 사업임무를 연구, 확정하며 <중화전국청년연합회규약>, <중화전국학생연합회규약>을 개정하고 새로운 임기 전국청년연합회와 전국학생연합회 지도기구를 선거, 산생한다.



최근, 장춘시 인민광장 '비행기 조각상' 보수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각상은 세차례의 페인트칠을 거쳐 최종 군복색으로 변모하게 되며 7월 15일에 정식으로 시민들과 만나게 된다. / 길림일보

중요 알림! 신분증 교체와 관련

최근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신분증이 곧 만료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4년말부터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2세대 주민신분증을 집중적으로 갱신 발급한 시기였다. 유효기간이 20년인 2세대 주민등록증 만료 및 갱신이 절정에 달하는 해이다.

그럼 신분증이 만료되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 신분증이 곧 만료되는데 몇 개월전부터 교체할 수 있는가?

2004년 1월 1일에 정식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주민신분증법>에 따르면 2세대 신분증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며 총 4가지 다른 사용기간이 있다.

- 만 16세 미만: 유효기간 5년.
- 16세 - 25세: 유효기간 10년.
- 만 26세 - 45세: 유효기간 20년.
- 만 46세 이상: 장기유효.

규정에 따라 주민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군중들이 고봉기를 피해 신분증을 교체할 수 있도록 상해, 광둥, 강소 등 지역의 공안기관은 신분증 교체 기간을 만료되기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 어떻게 신청하는가?

로해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만료된 신분증 교체 비용은 20원이다. 주민 신분증 업무가 이미 '전국 통합처리'를 실현하여 호적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존 주민신분증을 지참하고 가

까운 공안파출소 종합창구를 선택하여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편리한 신분증 교체를 위해 파출소 종합창구외에도 여러 지역의 공안기관에서는 온라인 처리와 셀프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증을 교체하려면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을 때 규정에 따라 높은 것의 목이 없는 상의와 로우넷 디자인의 상의를 착용할 수 없는 외에 옷의 색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도 있다.

■ 신분증 사진 찍을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1. 신분증 사진은 채색 정면 면관 사진이어야 하며 촬영 시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고 머리를 똑바로 해야 한다.
2. 제식 복장을 입지 말고 높은 것의 목이 없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어두운 색의 상의를 입으며 흰색 등 밝은 색 상의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3. 늘 안경을 착용하는 주민은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4. 진한 화장이나 머리염색을 해서 안된다.
5. 소수민족의 풍속을 존중하는 외에 남성은 짙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된다.
6. 모자, 약세사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7. 사진을 찍을 때 귀와 눈섭을 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인민넷

연변의 현대농업단지들 향촌 진흥에 힘 보탠다

현재, 연변에는 3갈래 특색농업 산업사슬이 힘차게 수구치고 있다. 연길시인삼국가현대농업산업단지의 심층가공 생산라인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둔화시 대두(大豆) 국가가향대농업산업단지의 콩 파종면적은 70만무를 넘어섰다. 룡정시 연변 황우국가현대농업산업단지의 현대화 사육장은 생기가 넘치고 있다. 이 3대 국가급 현대농업산업단지는 강력한 엔진마냥 연변 향촌진흥전략의 실시를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진척을 다그치고 있다.

연길시에서 인삼산업은 한창 심층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의란진, 조양천진, 삼도만진을 핵심으로 한 표준화 재배구역은 길림연길국제공향경제개발구내 8만평방키로메터 심층가공 집중기지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유명 인삼 심층가공 기업 유치에 주력하며 산업 집중화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산업이 활기차게 발전하는 물결 속에서 기업의 혁신은 산업 승격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연변 단군약업유한회사가 그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연변단군약업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에 들어서면 과학기술 느낌이 물씬 풍긴다. 10여개의 공정을 거쳐 장백산의 5년생, 6년생 홍삼이 홍삼칩과,

음료 등 인기 제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로동자들은 능숙하게 홍삼फल을 포장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장백산의 적령기 홍삼을 원료로 하고 있는 제품은 식품, 약품 두가지 기준을 엄수하고 있다."고 리사장 보조 리청림은 홍삼फल 한봉지를 들고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길림성 농업산업화 중점 선두기업으로 단군약업은 표준화 재배기지를 건설했다. 1,000평방미터의 검측실시설에서 정밀하게 제품을 연구하고 국내 시장을 넓게 확장하는 한편 로씨야, 한국 등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단군약업과 같은 기업은 연길시의 인삼산업단지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이 산업단지에는 이미 24개의 인삼 심층가공 기업이 입주했고 산업 발전의 주요 버팀목으로 되었다. 2023년 8월에 개업한 연변봉정거래시장은 산업사슬을 한층 보완했다. 단지내에서는 표준화 재배, 인삼 심층가공, 무역물류와 부대봉사 등 4대 기능 분야가 협동 운영되고 있다. '선두기업 + 신형 경영주체 + 농가'의 합작 모식을 혁신적으로 채택하고 주문농업, 리윤반환, 주식투자배당 등 기제를 통해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고 치부하도록 이끌

기에 일인당 가져보소득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현재 단지는 전 주 인삼재배면적 1만 7,600무, 연간 가공능력 약 1만톤을 파급하며 연변 인삼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었다.

한편, 둔화시 공산업의 굴기는 국가 '렘도만(镰刀弯)' 재배구조조정과 공급측 구조조정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둔화시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입쌀을 콩으로 교체(米改豆)'하는 시범 대상은 성과가 뚜렷하다. 2024년 단지의 콩 파종면적은 70만 8,600무에 달하고 생산량은 11만 6,800톤에 달한다. 강남진, 대교항 등 향진에 건설한 5만 6,258헥타르의 표준화 재배기지는 둔화시경제개발구내에서 건설하고 있는 가공산업 플랫폼에 깊이 융합되고 있다. 단지에는 15개의 콩 가공기업과 222개의 신형 경영주체가 모여 완벽한 가공체계를 형성했다.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창고물류중심은 10만톤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품 저온(冷链) 유통률이 70%를 초과하고 곡식과 콩의 종합수거 저장 능력은 61만톤에 달하여 산업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룡정시에 위치한 연변황우국가가향

대농업산업단지는 목축산업의 강대한 발전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로투구진, 지신진, 동성용진 3개 향진의 46개 행정촌을 포괄하여 총면적이 177만 6,000무에 달하는 단지내에 '하나의 핵심이 이끌고 두 날개가 함께 나는' 발전 구도가 이미 형성되었다. 연변목축개발그룹, 룡정시목락목축유한회사 등 선두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의 건설이 총투자액은 44억 5,300만원에 달했고 대량의 투입으로 현저한 성과를 가져왔다. 2024년말까지 룡정시 고기소 수량은 6만 9,502마리에 달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14.26% 증가하고 연간 도축 가공 능력은 10만마리로 급증했다.

현재 연변주는 이미 국가, 성, 주 3급 련동의 현대농업산업단지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는데 총수량이 26개에 달한다. 연변황우, 인삼, 콩 3대 국가급 산업단지는 산업 발전의 고지일 뿐만 아니라 연변 향촌 진흥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생동감 있는 모범으로 되었다. 이 단지들은 강력한 엔진으로 이 흑토지에 현대화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진흥의 길을 밝게 비추고 있다.

/ 길림일보

장백산공항 여러 신규 로선 개설

장백산공항은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운항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규 로선을 다수 개설하여 관광객의 피서휴가 및 비즈니스 출장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6월말부터 장백산공항은 기존의 중국출주항공 '장백산-상해', 중국화화항공 '장백산-대련-천진' 로선의 토대에서 동방항공, 길상항공, 산둥항공, 남방항공, 중원항공 등 항공사와 협력

하여 '장백산-북경', '장백산-청도-상해', '장백산-제남' 등 로선을 연속 신설했다. 이외에 '장백산-상해'와 '장백산-북경' 등 2개 인기 로선의 일일 운항 회수를 2-3편으로 증편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간 장백산공항의 항공 로선망은 상해, 북경, 청도 등 6개 도시를 연결하여 국내 항공운송망을 한층 밀접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길림일보

장춘역, 2025년 여름철 려객수송 업무 시작

장춘서역, 일부 고속렬차 반려동물 탑승 가능

7월 1일부터 장춘역 2025년 여름철 려객수송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예측에 따르면, 여름철 려객수송 기간 장춘역은 665만 명에 달하는 려객을 수송, 연인수로 하루 평균 10만 7,000명의 려객을 수송하게 된다.

올해 여름철은 학생, 관광, 친척

방문 등 려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춘역의 려객 류동은 고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장춘역은 3분기 려차운행도를 기반으로 여름철 임시 려객렬차 운행도를 시행하여 임시렬차 34쌍을 증편할 계획이다. 최초로 운행하는 장춘-흑호트 K4558/5, K4556/7 려차는 초원과 '봄의 도시' 장춘을 연결

하게 된다. 심양북-만주리 K4259 려차의 장춘역 정차를 추가하여 홀룬부르초원행 려객에게 출행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장춘(장춘서)에서 발차하는 임시렬차 23편을 증편한다. 그중 북경행 6편, 연길행 3편, 장백산행 2편, 곤산행 1편, 송원 및 백성행 3편이다. 장춘역은 여러 인기 로선을 증편하는 방식으로

관광객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고속철 반려동물 위탁수송 시범사업의 확대에 따라 장춘서역을 경과하는 G935, G950 고속렬차에 반려동물 위탁수송을 개통하여 반려동물 동반 려객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 길림일보

· 가요 ·

고향의 정든산

최성길 작사
리하수 작곡
방성길 노래
한택수 녹음

작사: 최성길 작곡: 리하수 노래: 방성길